

11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수산물 수입동향

○ 2012년 9월 일본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7% 감소 ('11년 9월 수산물 수입액은 123,306,124천엔)

(단위: 천엔, %)

구 분	'12년 9월 당월		'12년 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116,572,952	△5.7	1,111,581,552	7.9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엔, %)

품목	'12.1~9월	'11.1~9월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전체	1,111,581,552	1,029,985,164	7.9	중국	194,961,183	칠레	107,552,390	태국	93,316,607
◦가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3,440,240	3,358,999	24	인니	2,039,326	필리핀	555,137	파푸아뉴기니	212,101
◦참치류(신선,냉장,냉동)	140,827,628	137,350,335	25	대만	32,802,471	한국	16,764,377	호주	10,964,848
- 날개다랑어	2,515,572	3,308,376	△24.0	대만	1,116,266	비누아투	551,353	한국	259,440
- 황다랑어	21,602,807	20,270,856	6.6	대만	6,207,582	인니	2,434,787	한국	1,771,457
- 참다랑어	28,489,819	31,579,563	△9.8	크로아티아	5,979,111	태국	4,537,304	스페인	4,362,918
- 눈다랑어	55,030,775	46,398,462	18.6	대만	24,926,212	중국	5,871,816	인니	5,251,048
- 남방다랑어	12,435,350	16,102,998	△22.8	호주	10,172,942	한국	985,754	뉴질랜드	894,284
◦황새치(황새치포항) (신선,냉장,냉동)	5,878,985	4,536,022	29.6	대만	1,597,778	인니	1,570,540	중국	782,424
- 황새치	4,036,618	3,125,539	29.1	대만	2,435,840	인니	790,373	중국	714,155
◦활 낚치(030199220)	2,062,386	2,349,283	△11.9	한국	2,062,386	-	-	-	-
◦망어(신선,냉장,냉동)	4,020	99,148	△95.9	한국	4,020	-	-	-	-
◦도미(신선,냉장,냉동)	87,346	82,209	6.2	모로코	19,298	한국	17,552	아르헨티나	14,571
◦삼치(신선,냉장,냉동)	1,693,608	1,921,379	△11.9	한국	1,671,612	중국	14,843	피지	3,710
◦금눈돔(냉동)	1,911,929	1,521,874	25.6	쿠웨이트(뉴질랜드)	856,412	뉴질랜드	534,537	한국	200,622
◦복어(신선,냉장,냉동)	698,580	636,523	9.7	중국	693,437	한국	15,143	-	-
◦오징어(活,신선,냉장,냉동)	33,796,277	29,650,204	14.0	중국	9,896,029	태국	8,734,586	베트남	5,311,760
- 몽고오징어	10,629,279	8,198,142	29.7	태국	3,798,953	베트남	2,319,646	모로코	1,526,915
- 오징어(몽고제외)	23,166,998	21,452,062	8.0	중국	9,889,940	태국	4,935,633	베트남	2,992,114
◦전복(活,신선,냉장,냉동)	5,133,179	4,315,897	18.9	한국	3,273,237	호주	996,072	중국	394,771
◦굴(活,신선,냉장,냉동,훈제)	2,067,074	2,566,543	△19.4	한국	1,909,914	뉴질랜드	62,048	호주	50,236
- 굴(活,신선,냉장)	202,870	-	-	한국	157,852	호주	16,174	미국	14,475
- 굴(냉동)	1,803,964	-	-	한국	1,691,822	뉴질랜드	62,048	호주	34,062
- 굴(훈제)	60,240	-	-	한국	60,240	-	-	-	-
◦패주(活,신선,냉장,냉동)	762,115	730,752	4.3	한국	393,331	중국	353,919	필리핀	14,865
◦바지락(活,신선,냉장,냉동)	3,902,368	3,583,801	8.9	중국	1,976,316	한국	1,926,052	-	-
◦염건 수산물	42,536,853	39,269,220	8.3	중국	13,122,245	한국	8,841,101	칠레	5,275,611
- 건조김	2,020,893	1,097,039	84.2	한국	1,500,524	중국	520,369	-	-
- 툇	2,103,531	2,222,932	△5.4	한국	1,365,574	중국	737,957	-	-
- 미역	6,942,108	9,579,503	△27.5	중국	4,840,062	한국	2,098,846	아르헨티나	3,200
◦계 조제품	14,755,184	12,892,447	14.4	중국	9,549,832	한국	2,658,385	인니	1,539,279
◦한천	2,880,467	2,442,521	17.9	칠레	1,340,743	한국	710,526	모로코	370,64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

○ 수입동향

- 2012년 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서 감소가 눈이 띄는 것은 활넙치 2,062,386톤, 전년대비 11.9%감소, 방어는 4,020로 전년대비 95.9%가 감소되었음.
- 증가된 품목으로 연건 수산물이 있으며 그 중 건조김은 2,020,893톤으로 전년대비 84.2% 증가함.

○ 자국 생산

1) 고등어

- 일본해에서 어획되는 고등어류는 동중국해와 일본해를 회유하는 대마도난류계자원의 일부로 그 동향은 동중국해와 밀착 관련이 있음. 일본해 주요항(시마네현~니가타현)의 고등어류의 어획량은 2011년부터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월~9월의 어획량은 17,000톤으로 전년동기(14,000톤)를 상회했다.
- 11월14일 6천톤, 19일 7천6백톤으로 1주일동안 초시어항에서 1,4만톤을 어획함. 산지가격은 50엔~90엔으로 대량어획이었음.
- “2012년도 제3회 일본해 해황예보” (일본해구수산연구소)에 의하면 2012년 10~12월 대마도난류역의 표면온도는 높은 상태로 어항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함.
- 수출동향
재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10월도의 냉동 고등어 수출의 총수량은 9,715톤이었음. 그 중 3분의 1을 서아프리카가 차지함

2)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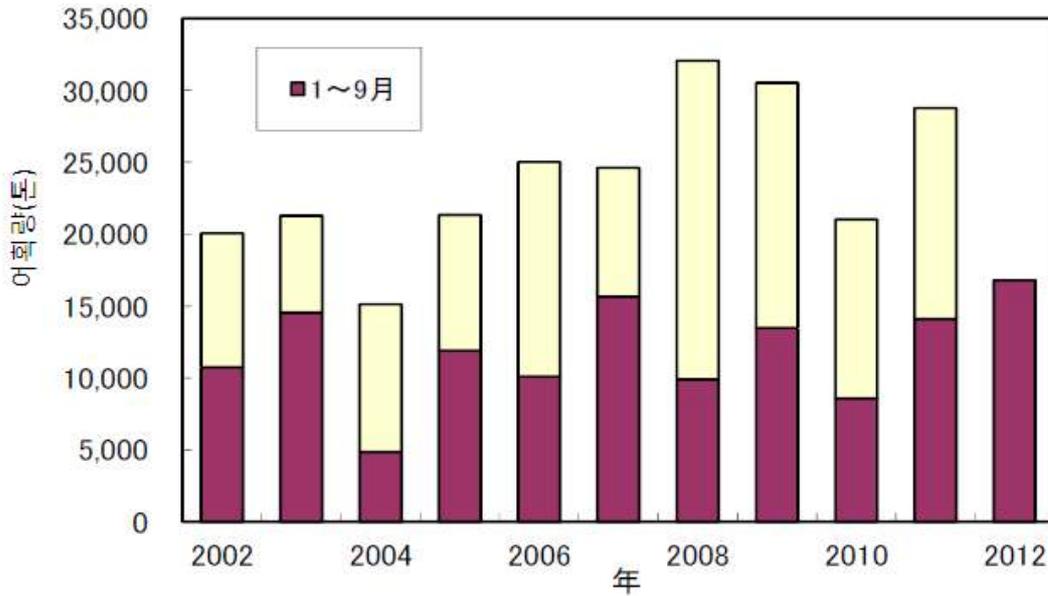
- JF전어련이 정리한 9월의 전국 오징어 어획 집계에 따르면 오징어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냉동이 증가한 반면, 신선은 감소하여 합계 12%감소의 2만 369톤으로 3개월 연속 감속함.
- 냉동 오징어는 전년동월의 어획불신이 현저되었던 반동으로 인해 북해도, 삼육, 본주일본해가 모두 작년을 상회하여 27%증가의 6484톤이 되었음. 평균단가는 신선이 33엔 하락한 킬로당 193엔, 냉동이 55엔 하락되어 224엔이었음.
- 신선, 냉동을 포함하여 1월부터의 누계는 전년동기비 10%감소의 8만1798톤으로 여전히 전년도 미달이 계속됨. 평균단가는 36엔 하락의 216엔.

< 전국의 오징어 어획 집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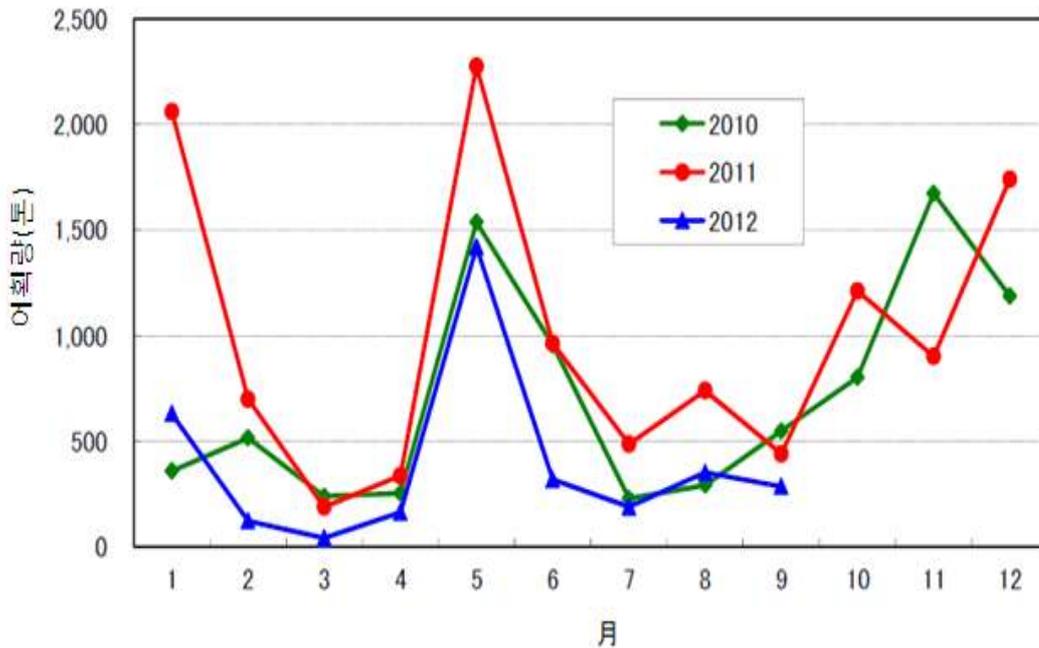
지 구	9월				1-9월				
	신선	전년비	냉동	전년비	합계	전년비	합계	전년비	
살	북해도	7,883	124%	3,099	127%	10,982	125%	38,846	106%
오	삼육	4,961	47%	2,384	123%	7,345	59%	29,070	88%
징	일본해	343	115%	997	133%	1,340	128%	12,067	83%
어	큐슈	699	92%	4	200%	703	92%	5,813	93%
화	합계	13,886	77%	6,484	127%	20,369	88%	81,795	90%
살	북해도	-	-	-	-	-	-	5	-
오	삼육	1	100%	3	5%	4	6%	2,719	63%
징	그 외	-	-	-	-	-	-	-	-
어	합계	1	100%	3	5%	4	6%	2,724	64%

3) 방어

- 2000년~2010년의 효고현~니가타현의 주요정치망의 어획량은 4,900~8,600톤으로 큰 변함이 없었지만 2011년은 12,100톤으로 전년을 크게 상회함. 2012년 1월~9월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3,500톤으로 전년동기(8,200톤) 및 과거5년(2007년~2011년) 평균(5,900톤)을 크게 하회함.



효고현~니가타현의 방어의 특정정치망월별어



어획량(2010~2012년, 2012년은 9월까지)

○ 소비동향

- 9월의 가계지출은 어개류 지출이 3%감소, 가리비 조개 지출 27%증가, 수량 38%증가하였음. 새우, 오징어의 구매수량이 늘어났음.
- 총무성이 발표한 9월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전국 1세대당 어개류 지출액은 전년동월비 3%감소의 5,717엔 이었음.
- 신선어개류의 지출액은 1%감소의 3442엔. 구입수량은 3%감소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해 구입수량이 대폭증가 한 것은 새우가 11%증가, 오징어는 11%증가. 연어도 6%증가, 생선회 5%, 참다랑어 1%증가가 되었음.
감소품목은 방어 27%감소, 정어리 27%감소, 전갱이 19%감소, 도미 14%감소, 문어 11%감소하였음.
- 식량비 전체의 지출액은 0.9%증가의 7만131엔. 집계세대수는 7691세대임.

	2012년			전년대비		
	지출	수량	가격	지출	수량	가격
어개류	5,717	-	-	97%	-	-
신선어개	3,442	2,601	132	99%	97%	102%
선어	3,326	2,452	132	99%	97%	102%
참다랑어	401	169	237	110%	101%	108%
전갱이	94	84	112	88%	81%	109%
정어리	28	35	81	78%	73%	107%
가다랑어	120	78	153	99%	95%	104%
넙치	85	77	110	90%	96%	93%
연어	386	297	130	101%	106%	95%
고등어	87	99	88	105%	100%	105%
꽁치	376	475	79	100%	98%	102%
도미	69	42	165	82%	86%	96%
방어	181	118	153	79%	73%	108%
오징어	203	219	93	103%	111%	93%
문어	89	47	188	95%	89%	106%
새우	253	162	156	102%	111%	92%
계	51	21	237	134%	91%	140%
조개류	206	150	137	103%	95%	108%
바지락	59	60	98	83%	79%	106%
가막조개	34	26	131	97%	96%	102%
굴	4	3	156	80%	100%	104%
가리비	90	47	191	127%	138%	92%
염건어개	982	631	156	93%	96%	97%
염연어	140	118	119	102%	111%	92%
대구알	159	56	283	85%	93%	91%
말린멸치	119	39	303	112%	108%	103%
말린전갱이	67	64	105	84%	91%	91%

○ 대외수입

- 10월의 수산물 수입고는 수산물 국제유통협의회에 따르면 24만 887톤, 1339억1448엔이었음. 수량은 전년도월비 5%증가. 금액은 7%증가임. 1월부터의 누계는 226만3213톤(전년동기비 5%증가) 1조2432억1267엔(8%증가)
- 새우는 2만2106톤, 184억2072엔. 수량은 전년동월과 변함없으나 금액은 4%감소함. 누계는 2%감소의 15만9480톤.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1355억 2957만엔. 계는 69%증가의 8246톤. 누계는 25%증가의 4만8520톤.
- 참다랑어류는 황다랭이가 전년동월 수준의 4596톤의 통관. 금액은 11%감소의 20억3552만엔. 눈다랭이는 지난달에 이어 호조로 전년동월비 41%증가의 8707톤. 금액은 21%증가의 60억6569만엔. 남방참다랑어는 5.2배의 1541톤. 가다랑어는 85%증가의 4100톤의 통관. 호조의 반입이 계속되는 연어·송어는 전년동월비 10%증가의 1만8259톤의 반입. 누계는 20%증가의 24만 5322톤.
- 문어는 전년동월비 67%증가의 7473톤의 통관. 누계는 32%증가의 3만8286톤. 오징어는 1%증가의 6678톤의 반입으로 누계는 3%증가의 6만2143톤이었음.
- 은대구는 22%증가의 1195톤. 광어·넙치류는 4%감소의 3805톤의 통관이 되었음. 연육은 명태연육 등이 55%증가의 1만3462톤의 통관. 미국산 명태 연육의 수입단가는 킬로당 304엔. 전년동월의 249엔(재작년 385엔)을 22% 상회했음. 실꼬리돔 연육은 54%감소의 2632톤이었음.

□ 향후 시장 전망

○ 일본해 11~3월 어황예보

- 수산청이 11월27일 발표한 11월~3월까지의 일본해 고등어, 방어,의 장기어황예보에 의하면 고등어(시마네현-니가타현) “전년은 하회”, 방어 (효고현-니가타현)은 2012년급의 풍도는 전년수준, 2011년급은 전년을 하회하며, 2010년급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을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으로 추이됨. 방어는 2012년급의 6월~9월의 어황은 저조로 추이되고 있으나 예년에는 10월 이후에 어획량이 크게 상승하여 2012년급의 내유량은 작년수준으로 기대됨.

○ 한국산 수입 증감 사유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액은 1조3673억으로 추정되며 미역, 김, 굴 등의 한국산 수입이 증감하였음.
- 한국산 굴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히로시마를 주산지로서 하는 일본산 굴 수확량이 성장 부진으로 부족하기 때문. 무역통계에 의하면, 10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26.8% 증가한 290톤임. 상사관계자는 "11월도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에, (한국산)신선 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시사점

- 수산물의 수입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 지출의 현황을 보아 가리비, 게 등의 수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특정품목 시장동향 - 게

○ 명칭 : 게 Crabs(영명)/カニ(蟹:일명)
게 살 カニ身(일명)

○ HS코드 및 관세율

HS번호	품명	실행관세율
0306.14-010	왕게	4%
24-110		
14-020	대게	
24-121		
24-129		
14-030	꽃게	
24-130		
14-040	털게	
24-140		
24-150	참게	
14-090	기타의 것	
24-190		
1605.10-021	게의 조제품(용기들이 이외 : 쌀을 포함)	9.6%
10-029	게의 조제품(용기들이 이외 : 기타의 것)	

주의) 0306.24-150(참게)은 2005.6.1부로 기타의 것에서 분리됨.

- 일본에서 어획되어 식용되는 주요 게류를 보면, 왕게, 대게, 꽃게류, 홍대게, 털게 등임. 게류에는 활어, 신선, 보일, 냉동, 통조림(주로 대게, 왕게)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품은 이전에는 보일, 냉동상태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활어가 늘어나고 있고 왕게, 대게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게 어획량은 근해자원의 감소로 1983년을 절정으로 감소를 나타내어 최근 어획량은 절정시기의 약 4할 정도로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수입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약간 감소추세로 추정되고 있음. 또, 밀어(密漁)품에 대한 일본의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주요 수입상대국인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은 게시장이 성장되고 있는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일본 게 생산량은 2010년도는 31천톤으로 일본은 이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어획·생산량을 자랑하였지만 금년은 피크시기의 3분의 1정도로 감소하였음.

< 게의 종류 >

구분	왕게 (たらばがに) (鱈場蟹)	대게 (ずわいがに) (ズワニ蟹)	꽃게 (ワタリがに) (がざみ)
형상			
게살			
학명	Paralithodes camtschaticus	Chionoecetes opilio	Portunus t rituberculatus
영명	King crab, Alaskan king crab	Snow crab, Tanner crab	Blue crab, Horse crab, Swimming crab
구분	털게 (けがに) (毛蟹)	참게 (もくずがに) (藻屑蟹)	청색왕게 (ハナサキガニ) (花咲蟹)
형상			
게살			
학명	Erimacrus isenbeckii	Eriocheir	Paralithodes brevipes
영명	Horsehair crab	Mitten crab	Blue king crab

○ 일본 계의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

계류	수량				금액			
	'08	'09	'10	전년비	'08	'09	'10	전년비
합계	88,424	77,800	62,433	△ 19.8	921,662	731,748	755,265	3.2
왕계	19,746	16,283	11,487	△29.5	303,766	207,559	220,461	6.2
러시아	15,049	12,161	8,007	△34.2	203,447	130,664	127,454	△2.5
미국	3,615	2,564	2,749	7.2	81,530	53,946	81,851	51.7
노르웨이	1,071	1,532	721	△53.0	18,622	22,390	10,995	△50.9
캐나다	-	-	9	-	-	-	135	-
중국	6	25	2	△94.1	86	560	27	△95.1
대계	46,160	42,078	31,903	△24.2	329,246	256,970	284,522	10.7
러시아	37,708	34,960	24,292	△30.5	233,945	180,138	190,528	5.8
캐나다	5,838	4,850	5,317	9.6	73,346	54,736	74,085	35.4
미국	1,471	1,851	1,828	△1.2	17,499	20,020	17,045	△14.9
한국	1,015	309	262	△15.0	2,749	1,199	1,071	△14.9
덴마크	6	49	150	210.1	79	435	1,034	137.7
꽃계	4,414	3,337	2,894	△13.3	20,484	16,598	14,600	△12.0
중국	2,423	894	1,421	59.0	10,469	3,965	5,817	46.7
바레인	1,358	1,746	1,014	△42.0	5,102	7,024	4,198	△40.2
베트남	315	320	246	△23.1	2,717	2,888	2,373	△17.8
미얀마	22	30	64	112.9	207	320	707	121.2
틸계	2,532	1,770	2,225	25.7	15,826	14,114	21,127	49.7
러시아	2,515	1,770	2,225	25.7	15,774	14,114	21,127	49.7
참계	105	88	89	1.1	3,224	2,969	3,580	20.6
중국	105	88	89	1.6	3,224	2,969	3,567	20.4
기타 계류	677	391	590	50.8	3,333	2,717	2,787	2.6
한국	317	9	182	1942.9	733	23	461	1871.1
중국	37	39	115	194.4	110	142	241	70.1
계 조제품	14,791	13,852	13,245	△4.4	245,784	230,821	208,188	△9.8
중국	10,066	9,057	8,383	△7.5	190,209	171,226	150,805	△11.9
한국	3,489	3,324	3,548	6.7	34,994	33,613	35,123	4.5
베트남	571	826	533	△35.5	10,885	15,745	9,450	△40.0
태국	195	258	266	3.0	3,510	4,770	4,332	△9.2
인도네시아	44	68	251	271.8	370	1,113	4,271	283.9
러시아	98	93	132	42.8	2,057	2,727	3,281	20.3
나미비아	155	159	84	△47.4	1,008	1,038	528	△49.2

○ 수입 동향

- 2010년 계 및 동조제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19.8% 감소의 6만2,433톤이었음. 수입액은 동 3.2% 증가의 7억5,526만달러.
- 2010년 종류별 수입상대국을 보면 왕계는 러시아로부터 8,007톤(점유율 69.7%), 2위의 미국에선 2,749톤(점유율 23.9%)이 수입되었음. 대계는 러시아에서 2,749톤(점유율 76.1%), 캐나다에서 5,317톤(점유율 16.7%)이 수입되었음. 꽃계는 중국과 바레인에서 수입이 많음.
- 계(동조제품 포함)의 수입은 06년까지 11~12만톤으로 추이되었지만 07년이후는 10만톤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10년에는 결국 7만톤까지 내려감. 특히 러시아는 금년의 밀어규제의 강화, 수출규제, 어획범위 설정 등으로 '10년의 수입량은 절정기의 반이하로 줄었음.

○ 게의 어획량 및 수급동향

- 2011년 게의 어획량은 30천톤(속보치)으로 전년대비 5.4% 감소를 나타냈으며, 종류별로는 홍대게가 4,400톤, 대게가 18,000톤, 꽃게가 2,700톤, 기타 게류가 4,900톤을 나타내고 있음. 전년 생산량과 비교하면, 홍대게(4809톤) 8.5%감소, 대게(20,312톤) 11.3% 감소를 보였으며, 꽃게(2,319톤)와 기타 게류(4,836톤)는 전년보다 미미한 증가를 보였음.
- 일본의 게 어획량은 근해자원의 감소로 1983년을 절정으로 감소를 나타내어 최근 어획량은 절정시기의 약 4할 정도로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수입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약간 감소추세로 추정되고 있음. 또, 밀어(密漁)품에 대한 일본의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주요 수입상대국인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은 게시장이 성장되고 있는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작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국내 생산량은 5.4% 감소, 수입량은 0.5%의 증가를 보였음. 일본국내 총공급량은 1.3%의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 게의 수급동향>

(단위 : 톤)

	2008	2009	2010	2011
일본국내 어획량	33,245	32,184	31,717	30,000*
수입량	88,424	77,800	62,433	62,798
일본국내총공급량	122,125	109,984	94,033	92,798

(주) : *은 속보치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일본 무역통계

<게살을 이용한 요리>



<일본 계 생산량 및 생산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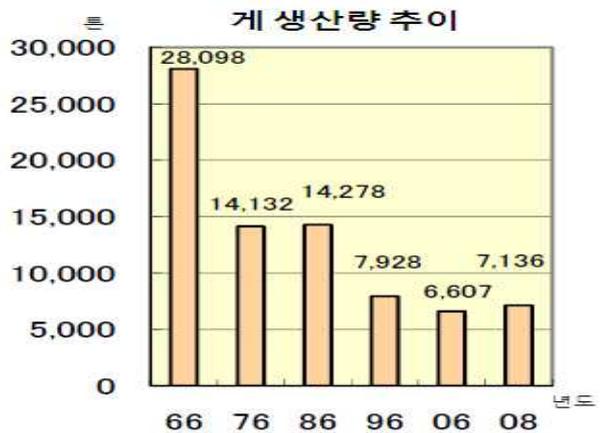
(단위: 톤, 백만엔)

	물 량				금 액			
	2009	2010	2011	증감율	2009	2010	2011	증감율
전국계	32,184	31,717	30,000	△17.9	2,2745	23,751	-	-
북해도	7,888	6,407	6,300	0.4	4,944	5,621	-	-
시마네	5,786	5,354	4,800	△68.1	2,050	1,723	-	-
효고	4,507	4,349	4,100	△77.0	4,411	4,309	-	-
돗토리	3,253	3,750	3,600	△17.0	2,538	2,422	-	-
니가타	2,417	2,656	2,700	28.3	817	839	-	-
이시카와	1,618	1,788	1,700	△7.1	1,555	1,544	-	-
토야마	798	761	800	1.5	406	364	-	-
도쿄	327	755	500	△6.9	332	1,097	-	-
아키타	633	688	600	5.4	212	203	-	-
야마가타	397	559	600	△22.5	98	141	-	-

자료 : 농림수산성 통계

◆ 최근 동향

- 오사카중앙도매시장 본장에서 7일에 일본산 대게의 경매. 입하가 감소하였음. 최고치는 1마리에 4만에 있었음.
- 도매가는 마츠바게가 1마리 4만~7000엔. 세코게가 1마리 2500~300으로 저년의 2~3할고로 되었음. 상장량의 저하를 반영하는 결과가 되었음.
- 2011년 어획량은 4400톤. 수위의 효고는 1400톤으로 3할강을 차지함. 2위는 돗토리의 1100톤, 3위는 이시카와와 후쿠이의 500톤, 5위는 북해도, 니가타, 시마네의 200톤임.
- 효고와 돗토리의 저인망어업자는 이번 여기부터 계의 어기를 자주적으로 단축. 전년대비 9일 짧은 1월20일~3월10일임.



○ 소비동향

- 일본 계 소비는 연간 평균 767g 소비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마츠바 계의 산지로도 유명한 돗토리가 가장 많은 5,020g으로 소비금액도 연간 평균 8,648엔 소비하고 있음.
- 돗토리의 소비량은 전국 평균의 6배이상임. 어류소비량은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소비량에 차이가 있는 패턴이 많지만, 계의 소비량은 대평양측과 일본해측으로 나누어져 일본해측에서의 소비량이 많음.

<지역별 계 소비동향('09년~'11년 평균)>

	전국 평균	1위	2위	3위	4위	5위
		돗토리	니가타	이시카와	후쿠이	시마네
(평균)소비량(g)	767	5,020	2,244	2,199	1,867	1,510
(평균)소비금액(엔)	2,342	8,648	1,928	6,378	5,961	2,394

주) 2인 이상 세대
(출처 : 총무성 가계조사)

○ 시사점

- 2011년 한국 계의 수입은 대게가 수입량 456,114kg, 수입액 218,373천엔이며, 꽃게는 17,453kg 45,086천엔이었음. 대게는 전년대비 77.4%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산 계의 수입도 대체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내에서의 한국산 계는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 강화 전략이 필요함.